

“주가 치솟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 투자 부진에 우는 개미

개인투자자 54%, SK하이닉스 매수
직관·감에 의존한 투자 성향 강해
“전략 세워 장기적 관점 투자해야”

대기업 부장인 이모(46)씨에게 ‘주식’ 두 글자는 요즘 금기어다. 올해 1~2월 국내 주식에 4000만원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수백만원을 잃어서다. 10개가 넘었던 투자 종목들을 거의 정리하고 아직 들고 있는 건 삼성전자·SK하이닉스다. 이씨는 “‘곧 오르겠지’하며 버티고 있지만, 상승장에서 왜 내가 투자한 종목만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라며 “정신건강에 안 좋아서 요즘은 주식 창도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거셌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6조원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2월 들어 투자 성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개미 필패’ 법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말도 나온다.

◆외국인 수익률, 개인보다 높았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2~13일까지 개인은 ‘SK하이닉스 몰빵 투



ChatGPT로 생성한 ‘개미 수익률’ 관련 이미지.

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한 종목 순매수만 3조2473억원에 달했다. 이어 네이버(7164억원), 현대차(5026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4852억원), 카카오(4029억원) 순이었다. 개인 순매수 상위 5종목의 이달 평균 주가 상승률은 -6.76%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두산에너지(5992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한

화솔루션(2984억원), 셀트리온(2592억원), 아모레퍼시픽(1584억원), 효성중공업(157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종목의 수익률은 18.73%로, 사실상 외국인인 ‘완승’이었다.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외국인들이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 상위와, 외국인 순매수 상위는 개인의 순매도 상위과 일치한다는 점도 특징적이

다. 외국인 순매수 1위는 두산에너지(5992억원)로 개인 순매도 1위(7329억원)였다. 외국인은 개인이 가장 많이 산 SK하이닉스(-4조8810억원)를 5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다만, 삼성전자는 개인과 외국인 모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의 저조한 투자 성적은 지난해와 달리 주식 투자의 난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며 “올해는 ‘선수’들만 수익을 내는 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가 부진한 SK하이닉스에 ‘몰빵’… ‘개미, 감에 의존해 투자’

SK하이닉스에 ‘몰빵’ 투자한 것이 개인이 한숨을 내쉬는 이유다. 개인은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6조57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 중 54%를 SK하이닉스로 채웠다. 특히 주식 초보자(주린이)들이 대거 매수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93만1000원까지 치솟던 SK하이닉스 주가는 2월에만 3.19%하락했다. 현재 주가는 88만원이다.

개인투자자의 성적표가 부진한 것은 투자 전략과 정보 분석력의 차이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는 행

(IB)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은 정보 접근성도 좋지만,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의사 결정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이에 반해 개인은 직관 또는 감에 의존해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분산도 중요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왜 실패하는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이 난 주식은 서둘러 팔면서 손실이 난 주식은 매도를 미루는 행태가 강했다. 소수 종목을 집중 매매하는 ‘복권형’ 투자, 남들이 사는 종목에 우르르 몰리는 ‘군집 거래’ 경향 등도 관찰됐다. 한 증권사 임원은 “넘치는 정보 속에 개인 투자자들이 전보다 스마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유튜브 채널과 리딩방 등에서 선동당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오천피(코스피 5000)’ 국면에서 개인들이 끝내 수익을 낸다면 국내 주식 투자 문화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기업분석보고서 80%가 대형주… 쏠림 심화 ‘시총 1조클럽’ 상장사, 한달새 42곳 늘어

코스닥 기업 19.5%인 741건에 불과
리서치센터 축소·서학개미 부상 영향

국내 증권사리서치센터가 펴내는 종목 분석 보고서의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고서의 80% 이상이 대형주에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코스닥 종목에 대한 보고서는 약 20%에 불과했다. 개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일부 인기 종목에만 거래와 자금이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발행한 기업 분석 보고서는 3795건으로, 이 중 80.47%인 3054건이 코스피 상장 기업의 분석 보고서였다. 코스닥 기업은 741건(19.5%)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발간된 종목 리포트 2만3114건 중 코스닥 종목 비중은 24%(5600건)에 그쳤다. 분석 보고서가 없는 코스닥 상장사도 약 62%(1131곳)나 됐다.

증권가에서는 리서치센터 축소와 서



ChatGPT로 생성한 ‘국내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의 대형주 쏠림 현상’ 관련 이미지.

학개미 부상이 스톱갭 리포트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주식형 펀드 대신 개인 직접투자가 확산되면서 기관 영업 비중이 큰 증권사리서치센터의 몸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리테일 영업의 무게 중심이 국내 증시에서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개인투자자를 겨냥한 국내 스톱갭 리포트를 발간할 유

인 자체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리서치센터에서 스톱갭이 인기가 있었던 과거에는 담당 연구원이 자문사로 넘어가는 등 매력이었다”며 “지금은 미국 주식이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 스톱갭보다 해외 증시를 커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피·코스닥 상승세 효과

시가총액 ‘1조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3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우선주 포함)는 365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1조 클럽’ 상장사 수가 323곳 수준이었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42곳(13.0%)이 늘어난 것이다.

코스피 ‘1조 클럽’ 상장사가 238곳에서 249곳으로 늘었고, 코스닥에서도 시총 1조원 선을 넘는 상장사가 85곳에서 116곳으로 많아졌다.

시가총액이 10조원이 넘는 시총 10조 클럽 반열에 오른 종목도 62개에서 74개로 늘었다.

10조 클럽 종목은 대부분(68개)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였으나, 코스닥 상장사도 6곳이 포함됐다.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지난달 ‘천스닥’을 달성한 데 힘입어 레인보우로보틱스(약 13조원)와 삼천당제약(12조5500억원) 등 두 곳이 10조 클럽에 새로 합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망의 ‘시총 1000조원’을 돌파한 삼성전자(1073조원)가 선두에 나선 가운데 SK하이닉스(641조원), 삼성전자우(104조원), 현대차(102조원), LG에너지솔루션(92조원), 삼성바이오로직스(79조원)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유안타증권과 한국금융지주도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단기간에 시가총액 1조 클럽 상장사가 대폭 늘어난 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한 데 따른 측면이 커 보인다. 코스피는 지난 13일 5,507.01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이는 작년 말(4,214.17) 대비 30.68% 오른 것이다.

/신하은 기자

교보증권,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앞장

이석기 대표, 릴레이 캠페인 참여

교보증권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죵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캠페인에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가운데)가 직원들과 함께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 /교보증권

동참했다. 이 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와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추천해 릴레이를 이어갔다.

/신하은 기자

삼성증권, IRP·연금저축 각각 10조 돌파

2025년말 대비 합산잔고 71% 증가

삼성증권은 자사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잔고가 각각 10조원을 돌파하면서 1년여 전인 2024년말 대비 합산잔고가 71%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IRP·연금저축 합산잔고는 지난달 28일 기

준 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말(12조2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개인형 연금(확정기여형(DC형)·IRP·연금저축) 잔고도 17조1000억원대에서 29조1000억원으로 70% 많아졌다.

연금 투자자산 중에선 상장지수펀드(ETF)가 가입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2024년 말 6조7000억원대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16조원대로 잔고가 138%나 많아졌다. 이는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삼성증권은 이밖에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수익률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2(저위험) 3년 수익률이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평균(23.12%)의 약 2배 수준(44.87%)으로 안정투자형(저위험) 상품 중 전체 사업자 1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